

[로스쿨 합격기]

한 번 뿐인 인생에서

김민수

- 대구 영남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1기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11기로 입학하여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수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의 경험자로서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LEET, 자기소개서, 면접, 글쓴이의 이야기, 개인적인 생각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I. LEET

1. LEET를 처음 보실 분들에게

법학적성시험은 언어논리, 추리논증, 논술 3파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논술은 몇 개의 로스쿨을 제외하고는 P/F로만 반영하

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입시에서의 중요성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 준비를 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논술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기출문제에 대한 나름의 답안을 작성해 첨삭을 받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작성해보는 연습을 반복해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언어논리는 단시간 내에 다양한 주제의 글과 문제를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능 언어영역의 비문학과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지문의 깊이와 문제의 선택지의 난해함이 남다른편입니다. 시험을 2년 이상 앞두고 있다면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어보기 보다는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책을 선택함에는 주제에 치우침이 없어야 하고, 책을 읽는데 있어선 단시간 내에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추리논증은 문제를 푸는데 형식논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문제 유형별로 반복학습하여 공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실 때 논리학을 미리 공부해두면 좋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유형별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해 보완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LEET를 다시 보실 분들에게

몇 개월 뒤에 다시 LEET를 보셔야 할 분들은 법학적성시험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절대적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실력 향상도 피하되 이미 갖춰진 능력을 시험장에서 최고로 쏟아낼 수 있는 시험대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논리의 경우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잘 틀리는 문제의 유형을 찾아내 분석하고 이해가 어려운 주제의 책을 중점적으로 읽고 지문들에서 상식으로 전제하고 사용되는 기본 개념이나 단어의 정의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리논증의 경우엔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유형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학습방법은 위와 동일하고, 자신의 유형별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 푸는 순서 등을 달리하는 실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LEET를 보실 모든 분들에게

법학적성시험은 집중해서 마음 편히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LEET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배분이 중요하고 LEET지문은 자의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최대한 글쓰기가 쓴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득점에 대한 강박 및 지나친 긴장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도 프리킥을 잘 차려고 생각하면 몸 전반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상하게 찰 확률이 높습니다. 실전에서 자신을 믿고 연습한 대로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II.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정성적 요소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정성’은 ‘법과 관련된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거쳐 완성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담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가 되면 보통 어떻게든 과거를 엮고 엮어서 그럴듯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역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재료의 우수함보다는 주어진 재료를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실무적 경험’은 법 실무와 관련이 있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지 법무법인 등에서 일한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거쳐 완성된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정성들여 씀으로써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소개서의 논리적인 구성, 반복하여 다듬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진정성, 은연중에 글에 녹아들어가는 작성자의 인성과 글 간의 정합성 등을 기반으로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읽더라도 흠 잡을 데가 없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공들여 쓰면 됩니다.

Ⅲ. 면접

정성적 요소를 평가하는 두 번째 전형인 면접은 대학별로 문제나 평가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 준비를 달리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면접을 통해 공통적으로 평가되는 요소는 문제 분석력, 논리력, 설득력, 태도 등입니다. 구술형 LEET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전적으로는 꾸준한 독서와 토론이 도움이 될 것이고 면접 시즈에 이르러선 면접 스테디를 통해 경험을 쌓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학교의 면접유형에 맞게 자신을 정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Ⅳ. 글쓴이의 이야기

2017년 12월..., 예비 번호는 받았지만 합격할 가능성은 낮아보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18년도 법학적성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하다가 스테디를 메인으로 하고 17년에 수강했던 메가로스쿨 언어논리 및 추리논증 기본강의에 이어 18년도 심화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스테디

1월 중순쯤 스테디를 결성했고 매주 2회~3회씩 만나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스테디의 목적은 교학상장(敎學相長)을 통해 법학적성시험이 요구하는 '객관적 사고'를 함양하는 것이었고, 매주 2~3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1~2월 동안에는 기출을 다루었습니다. 사전에 기출을 풀고 검토한 뒤에 스테디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한 지문씩, 한 문제씩 분석내용을 공유하고 질문하며 토의하는 방식으로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3~4월 기간에는 MEET&DEET 언어와 PSAT 언어 및 상황판단을 다루었습니다. 앞서 기출을 분석하는 시간을 통해 정립한 접근 방법을 적용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서 시간이 더 걸리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다 바람직한 접근법을 습관화하기 위해선 의당 겪어야 되는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MEET&DEET 언어는 LEET 언어와의 유사성이 높아 도움이 되었지만 PSAT 언어 및 상황판단은 다소 무익한 것 같습니다.

5~7월에는 메가로스쿨의 LEET FINAL 과정에 포함된 모의고사를 본고사 시험 시간에 맞춰 함께 풀고, 오후에 함께 풀었습니다. 아무래도 본고사보다는 문제의 완결성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의고사의 점수나 해설은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았고, 그동안 집중해서 익힌 LEET 기출에 요구되는 적합한 사고방식 및 접근방법을 적용하고 스테디원들과 함께 다시금 점검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9월부터는 기존의 스테디원들과 함께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소개서의 경우엔 각자의 삶을 토대로 정합성 있고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줄거리로 자기소개서의 기틀을 잡도록 하고, 이 기틀을 따라서 내용을 채워 넣고 누가 보아도 좋은 글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계속해서 피드백 및 수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확실히 자격증 취득, 어학 능력 습득, 입상, 인턴, 동아리 대회 출전, 학부법학과목 성적 취득 등 증명할 수 있는 경험 내지 특성이 많으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면접의 경우엔 3:1 또는 4:1 모의면접 상황을 구성하고 면접기출로 연습했습니다. 그날그날 어떤 문제로 면접기출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에 맡겼고, 최대한 실전과 비슷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으며 면접관으로서 해야 할 질문의 경우엔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형식을 갖춘 발화, 순발력 발휘 등이 요구되는 실전 면접상황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개인공부

1~3월에는 기출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학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공부했고, 남은 시간에는 정치학, 과학, 미학 서적을 읽고 'LEET 로스쿨 적성시험 일본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4~5월에는 스터디에서 다루지 않은 PSAT과 이원준 문제은행을 풀고 언어논리 및 추리논증의 심화강의를 수강했습니다. 6~7월에는 기출을 밀도있게 복습하면서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8월엔 노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여력이 될 때 자기소개서를 구상하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9월부터는 원서를 제출할 때까지 자기소개서를

질릴 때까지 퇴고했고, 원서 제출 이후에는 면접 준비의 일환으로 사람들을 만나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기를 자주 했고 논리가 약하게 형성되거나 논거를 대기 어려웠던 주제들에 대해서 조사하며 최대한 허점을 메우고자 노력했습니다.

3. 후기

(1) LEET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생활했지만 1교시 언어논리 시험지가 눈앞에 놓이자마자 갑작스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서 초긴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콩알만 해서야 앞으로 무슨 일을...', '거의 매일 실전같이 모의고사를 친 지난 6개월은 허송세월이었나...', '내년 리트 접수는 언제지...' 등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고, 잠시 후에 시작종이 울리면서 불안정한 상태 그대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문의 가닥을 잡지 못한 채 꾸역꾸역 풀어나가는 것을 10분쯤 하니 다소 진정되었고 난해한 문제를 크게 고민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풀고 넘긴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모든 문제를 다 푸는데 성공했고 정신승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교시 준비종이 울릴 때쯤이 되어서 고비를 넘긴 것이 다른 고비를 초래했음이 느껴졌습니다. 언어논리 때 너무 긴장하고 너무 열심히 시험을 친 것으로 인해 심신의 활력이 고갈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추리논증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데 평소보다 긴 시간이 걸렸고 힘이 없던 탓에 사고의 밀도가 낮아져 정확성도 떨어졌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채점해보니 언어논리는 비교적 괜

참았지만 추리는증은 예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2) 자기소개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하며 열심히 살았음에도 증명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 없는 탓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높지 않은 학점, 법학 관련 정성 없음, 고만고만한 외국어 능력, 특별한 자격증의 부재 등등(더 썼다가 로스쿨 입학 수기가 아니라 부족함에 대한 고해성사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를 지니진 못했지만 법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학부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 또는 공부와 관련된 삶에 대한 가치관, 상대적인 관점에서 내세울 순 없지만 절대적인 관점에서 내세울 수 있는 능력, 되고자 하는 법조인의 구체적인 모습, 약 10년~20년 동안의 계획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난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성공했던 것 같고, 가진 재료들로 쓸 수 있는 최선의 자기소개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3) 면접

낯선 주제는 아니었고 나름대로 잘 답변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한 것 같습니다.

V. 나가며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시나요? 이루고자하는 바가 발전, 안락, 명예, 권력, 부, 가족, 사랑 등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우선순위와 부합하나요? 결과와 직업의 객관적 외형적 측면이 크게 중시되는 사회가 한국사회이지만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흘러나오므로써 향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로의 진학을 결정함에 있어 법조인으로서의 삶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기반으로 선택하여 종사할 수 있는 직업과 자신간의 적합성이라는 주관적 측면이 보다 높은 중요성을 가지고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번 뿐인 인생에서 낭비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법조인이 되는 것이 최선인가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행복하시길 바라고 저의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